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3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3월을 붙들고, 사순절의 걸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정돈합니다. 3월은 새 학기와 새 출발이 겹치고, 마음은 분주하지만 주님은 더 깊은 찬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번 3월은 부활절을 향해 걸어가는 사순절 한가운데이니,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대표 기도로 공동체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게 하소서. 주님,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워 주소서. 지켜주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의 뜨거움이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표로 기도하는 이의 입술에 성령의 담대함과 겸손을 주시며, 듣는 회중의 마음을 한곳에 모아 주옵소서. 3월 한 달(3/1, 3/8, 3/15, 3/22, 3/29)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간별 기도문 예시를 담았습니다. 교회 형편에 맞게 문장을 조정하되, 중심은 늘 주님께 두고 기도해 보세요. 대표기도는 보통 2~3분 분량이니, 핵심 문장만 골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찬양 후나 말씀 전후, 헌금 순서에 맞춰 문장을 옮겨도 자연스럽습니다. 회중이 '아멘'으로 함께 응답하기 쉬운 문장으로 다듬어 보세요. 주님, 끝까지 붙드소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3월1 삼일절과 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14-16)

주님,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인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높여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흠어지지 않게 하시고, 한 목소리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3월 첫 주, 나라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새로운 계절이 열리는 때에,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후의 남은 시간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찬양이 습관이 아니라 고백이 되게 하소서. 입술로만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찬양팀과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기쁨과 질서를 더하시고, 작은 실수에도 서로를 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삼일절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이 땅에 자유를 갈망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과거를 미화하거나 분노로만 붙잡지 않게 하시고, 기억을 통해 오늘의 책임을 배우게 하옵소서. 정의를 사랑하되 미움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진실을 말하되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두려움 없는 양심과 지혜를, 시민들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을 주셔서, 갈라진 마음이 치유되고 공동선을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또한,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경쟁과 비교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는 마음에는 평안을,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는 믿음의 동행자를 붙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작지만 구체적인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한 주의 삶으로 이어져, 우리의 말과 선택이 주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오후 예배를 통해 우리 안의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소서. 예배가 끝난 뒤에도 찬양의 울림이 남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부터 다시 순종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3월2 사순절의 회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17)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높아질수록, 마음은 더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숨기고 있던 죄와 교만을 정직하게 드러내게 하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도 가볍게 살던 믿음의 태도를 내려놓고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내면을 살펴 주옵소서.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마음이 들뜨면 주님을 잊고, 비판을 받으면 낙심하며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만지셔서, 변명 대신 회개를, 포기 대신 순종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관계의 죄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거칠게 말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게 꾸미며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붙잡고 미워하며, 풀어야 할 말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먼저 사과할 용기를 주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예배가 더 정결해지게 하소서. 찬양과 기도가 “잘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순서를 맡은 자나 앉아 있는 자나 모두가 경외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팀들에게는 한마음과 성실함을 주시고, 낙심한 봉사자들에게는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세상 속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경제의 불안으로 미래가 흔들리는 가정들, 병상에서 긴 시간을 견디는 이들, 돌봄의 책임으로 지친 가족들, 외로움 속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돕는 손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찬양이 내일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를 정죄로 몰지 마시고, 다시 시작할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3월3 치유와 회복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28)

주님,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이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이들을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안의 굳은 마음이 풀리고, 주님의 평안이 흘러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 지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반복되는 일상과 책임 속에서 웃음이 마르고, 믿음이 작아진 이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라는 자책에 갇힌 이들에게 주님이 다가가 주시고, 작은 순종 하나에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비교의 자리 아니라 회복의 자리 되게 하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치료의 과정이 길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의사와 간호사와 돌보는 손길에 지혜와 친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부담과 돌봄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공동체가 서로 짐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 한마디에 무너졌던 기억, 배신과 오해로 얼어붙은 마음, 실패의 경험 때문에 도전이 두려운 영혼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의 거짓말을 끊어 주시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대신 “나는 주님께 속했다”는 진리를 새겨 주옵소서. 오늘 찬양 속에서 자유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는 도움의 길도 열어 주셔서, 혼자서만 버티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픈 이들을 향한 시선이 판단이 아니라 환대가 되게 하옵소서. 상담과 돌봄, 소그룹과 교제의 자리마다 성령의 위로가 흐르게 하시고, “괜찮아, 함께 가자”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친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드린 찬양이 상처를 덮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씩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3월4 말씀과 순종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하나님,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리가 큰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많지만,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임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이 정돈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감동을 받았지만 삶은 그대로였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 타협하고, 손해를 볼까 두려워 진실을 숨겼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다”는 포기 대신 “주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작은 습관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가정에서의 순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관심했던 시간을 주님이 아십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식탁의 대화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리를 놓아 주옵소서. 일터와 학교에서의 순종도 붙들어 주옵소서. 성과와 실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신앙을 숨깁니다. 주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으니, 정직과 책임, 배려와 성실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경쟁 속에서도 남을 깎아내리기보다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하게 하시고, 억울함이 있어도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선을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배가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생명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과 리더들에게는 인내와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과 청년들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들은 말씀과 드린 찬양이 한 주의 선택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3월5 부활 소망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로마서 5:3-5)

주님, 3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순절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낙심을 몰아내는 기쁨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개인의 삶에 닥친 환난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관계의 갈등, 경제의 압박, 진로의 막막함, 믿음의 침체가 우리를 흔들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으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절망의 언어를 끊고 믿음의 언어를 다시 배우게 하옵소서.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소망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서로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자리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품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 온 성도들이 환대받게 하시고, 오래된 성도들이 섬김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사랑이 먼저”라는 질서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폭력, 혐오와 분열이 멈추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피난처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자기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우리도 작은 자리에서부터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기도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선교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부활절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의 찬양이 한 주의 삶을 불드는 노래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와 용기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예배 말씀과 찬양을 함께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